

다산포럼

청년 일자리 만들기과 재벌개혁 - 대선의 테자부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롯데그룹의 형제간 막장 싸움은 정부와 여당의 집권 후반기 정책 구상 및 총선 구상을 헝클어 놓았다. 재벌과 대기업만은 건들지 않으려는 구상이었는데, 더 이상 '아몰랑' 하고 있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후계구도 불안이나 총수의 사생활 및 사적 범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오너(총수) 리스크'가 한국경제의 위기 도화선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은 무수히 반복되어 왔다. 국내 40대 재벌그룹에서 지금까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이번 롯데의 경우까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잠재적 폭탄이 산재해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며 여써 재벌 개혁을 개혁 명단에

서 빼놓았다. 노동개혁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은 거기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얹음으로써 총선 전략으로 연결되었다.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주당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와 고시족이나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을 고려한 실질실업률은 추산에 따라 30%가 넘는다. 재계연구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취업 관련 준비나 구직 활동조차 전혀 안 하는 청년의 숫자가 163.3만 명이 이른다. 전체 청년 인구의 17.2%다. 청년층의 불만을 다독이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올 만하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널리 인지되어 있었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청년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이었고, 나중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문제가 표면되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반년 만에 경제민주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정부의 시야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8월 6일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청년 일자리 문제와 묶으면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또다시 선점하고 나온 것이다. 담화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인데, 중점은 노동개혁에 두고 재벌개혁은 빼졌다. 결국 "또 다시 대기업에 혜택을 줘서 경제를 살린다"로 요약된다.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대상에서 빼고, 성장률에 쫓으려면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하는 길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편이 집권 후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임금이나 가계소득은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내수나 워니 다 쓸데없다. 이렇게 보면 임금피크제의 전면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급형 임금체제로 바꾸며, 성과가 부진한 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에 대한 과건근로를 확대한다는 등 정부의 노동개혁내용을 단 한마디로 '노동의 일방적 희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계가 밑에서부터 노사정 회의를 거부하는 것도 뒤라 할 일이

아니다. 한 쪽만 희생하라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노동계를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한편 롯데 사태로 터져 나온 민심을 견디다 못한 여당이 내놓은 것이 재벌 총수를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 여당 간사가 말했듯이 "아당이 요구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어정쩡한 태도다. 국정감사가 안 나오면 그만이다. 2012년 10월 국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국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국감을 요구하는 듯 하는 야당도 부랴부랴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다지만 재벌 문제가 어찌오래 일이지 아니기에 급조한다고 될 일인지, 총선용 재탕 공약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18대 대선 당시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 민주화'를 선점해 선거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재벌개혁에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이미 지난 대선의 테자부(既視感)를 느낀다.

社說

금호산업 채권단의 합리적 결정 기대한다

윤창현 광주시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 되찾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금호산업 인수 전이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금호산업은 광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 대표 기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과 기업이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채권단의 지나치게 높은 인수 금액을 써낸 금호산업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최종 인수가로 주당 3만7564원인 6503억 원을 제시했다.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1조218억 원(채권단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출된 가격에 무려 9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에 비하면 3715억 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 금액이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금액(주당 3만907원)보다 22%가 높고 부대조건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3%가 높은 것이

라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계약권 되찾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금호산업 인수 전이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금호산업은 광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 대표 기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과 기업이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채권단의 지나치게 높은 인수 금액을 써낸 금호산업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최종 인수가로 주당 3만7564원인 6503억 원을 제시했다.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1조218억 원(채권단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출된 가격에 무려 9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에 비하면 3715억 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 금액이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금액(주당 3만907원)보다 22%가 높고 부대조건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3%가 높은 것이

서재, 세상을 말하다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다산 정약옹이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것은 1801년 겨울, 그의 나이 40세 때였다. 다산은 강진의 동문 밖 주막에 속소를 잡았다가 몇 차례 옮겨졌고, 1808년 봄부터는 다산초당(茶山草堂)에서 거주하였다. 다산은 18년의 유배기간 중에 읍내에서 8년, 다산초당에서 10년 가량 머물렀다. 읍내에 머물며 길러낸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 황상(黃裳)이다. 정약옹이 황상을 처음 만난 것은 강진에 도착한 다음해 10월, 황상은 열다섯 살 소년이었다. 다산은 그 소년을 위해 글을 한 편 지어주었다. 황상이 머리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글을 남들보다

황상(黃裳)의 일속산방(一粟山房)

빨리 외우지도 못하고, 글을 잘 짓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었다. 조금은 답답한 학생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산은 그것은 학문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부지런함'이었다. 남들보다 빨리 외우지 못하는 게 뭐 문제겠는가? 남들이 열 번 읽을 때, 너는 스무 번, 서른 번을 읽으면 될 것 아니냐? 부지런히 읽어라. 글을 잘 짓지 못하는 게 뭐 문제냐? 짓고 또 지어라. 남들보다 부지런히 지어보면 늘 것 아니냐? 사람이 좀 마숙하여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찌나? 계속해서 연마하면 문제될 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결코 단점이 아니라는 위로였던 것이다. 이후 황상은 다산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 실천하였고, 마침내 그는 시를 잘 짓기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황상의 소식은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에게도 전해졌다. 추사는 그 글을 만나고 싶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황상을 만나러 찾아 갔지만, 서울에 갔다는 소식만 듣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이후 황상은 김정희를 방문하였고 김정희는 황상의 시를 높게 평가하며 그의 시집에 글까지 써주었다. 황상은 서재 이름을 '일속산방(一粟山房)'이라 하였다. '일속산방'은 '좁쌀만한 집'이란 뜻이다. 당시 이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그 이름이 불가나 도가에서 가져온 것이라 여겼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유리는 학자는 좀 더 현실적으로 풀이하였다. 그의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좌우로는 제자백가의 책들이 수북하였고,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 조그만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었던 셈이었다. 그러니 집은 작지만 작은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으므로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라는 설명이었다. 황상은 일찍부터 은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속을 떠나 숨어살 생각이었다. 황상의 신분과 환경을 품기는 어려운 세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산에게 그 방법을 묻기도 하였다. 은거는 어떻게 해야 할니까? 다산이 말한 은거는 단순히 세상을 피해 숨어사는 게 아니었다. 그것

은 세속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소통하기 힘든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그곳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임금의 부름마저도 여유 있게 거절 할 수 있는 달관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은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속에 숨어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다산은 강조했던 것이다. 황상은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했던 시골 선비였다. 그러나 그는 19세기를 호령하던 조선 최고의 두 지식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런 그의 서재 이름이 '좁쌀 하나만하다'는 의미를 담은 '일속산방'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황상의 두 스승 모두 유배객의 신세였다. 본의 아니게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 유배 기간 동안 한 분은 500 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고, 또 한 분은 그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런 두 스승의 삶을 보면서 황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결국 삶의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교도소 내 폭력...재소자 관리 어떻게 했길래

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흥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가 최근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크게 다치면서 광주교도소 재소자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씨는 지난 19일 오후 교도소 내에서 40대 후반 재소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뒤늦게 복도에 있던 교도관이 달려왔지만 이미 씨가 중상을 입은 뒤였다라는 것이다. 이 씨는 현재 뇌출혈 등으로 전남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 교도소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교정 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근 국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8개 교도소에서 일어난 상해·폭행치상·폭력행위는 총 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

년 80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등 해마다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범죄가 잇따랐다. 광주 교도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폭력·추행 등의 건수가 전국 51개 교정시설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교정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도소 내 재소자 관리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죄의 경중은 법의 심판에 맡기고 죄질이 나쁘다면 법원이 중형을 내려 형을 살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정행정은 앞으로 교도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근무자들이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고

아프고 슬픈 역사, 경술국치



안웅현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오는 29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합병을 당한 경술국치 105년째 해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르며 국가의 통치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국권피탈(國權被奪)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을 상대로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날이다. 매년 경술국치일이 되면 생각나는 군인이 있다. 그는 바로 박승환 대한제국 육군 참령(參領)이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명령이 떨어지자 분개한 그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마지막 충성으로 자결을 택했다. 대한제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대한제국군은 박승환 참령의 자결을 계기로 강제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일본군과 전투에 돌입했다. 치열한 시가전으로 한때 우세를 점했던 대한제국군은 군수물자의 보급이 없어 결국 일본군에 패퇴하고 말았다.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대한제국군은 이후 의병으로 항일전쟁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조국에 충성스러운 군인도 있었지만 대한제국 총리대신인 이완용 등 친일파들은 일본과 손을 잡고 병합조약을 체결, 결국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면서 민족의 주권과 고유의 문화를 계승해 왔다. 하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을 당하여 5천 년 역사상 유례없는 이민족의 완전 식민지가 된 경술국치일이후 일제에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됐다. 경술국치.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지만 이날을 기억하거나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으나, 1960년대 한

일협정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한 이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듯하다. 공공기관, 광복회 회원 등 몇몇 단체들만이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경술국치일 등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광주시 국치일 등 국가의 조기 계약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의 조기 계약 홍보와 시민, 학생, 공무원들의 경술국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 흘리며 투쟁하여 얻은 거룩하고 명예로운 조국의 광복을 되돌려야 할 때다. 특히,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수구세력들을 단죄해야 할 시점이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이웃나라 식민지배의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면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와 위안부 사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새롭게 날조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또한, 우리의 몇몇 잘못된 역

사학자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표상인 유관순 열사를 역사책에서 지워버렸다.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역사가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잃어버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진보적 역사관과 보수적 역사관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 모두 자기가 보는 시각만이 올바르다는 이데올로기에 있다. 우리와 같이 제국주의 지배를 받은 인도의 경우 전국 곳곳에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 기념관이 있다. 제국주의 지배의 상징인 지역 왕들의 성에 가변 거의 비슷하게 1층에선 영국 식민지의 잔재를, 그리고 2층에선 지역 독립투사의 자취를 전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역사를 배운다. 역사책에서만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지우는 민족은 미래의 역사도 없다. 과거는 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할 때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특정 단체나 행정기관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이 함께할 때 밝은 미래도 있는 것이다.

無等鼓

유언비어(流言蜚語)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다. 대부분 처음 들으면 믿지 않는다. 하지만 자주 듣게 되면 사람에게 따라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럴싸한 거짓 말이다. 유언비어는 역사적으로 정치나 전쟁에 있어 자주 동원돼 왔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라는 말도 있다.

유언비어의 어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동양에서는 '시경(詩經)과 '사기(史記)에 처음 보인

유언비어와 공포

유언비어는 역사적으로 정치나 전쟁에 있어 자주 동원돼 왔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라는 말도 있다. 유언비어의 어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동양에서는 '시경(詩經)과 '사기(史記)에 처음 보인 유언비어는 공포를 일으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성을 빼져 나가는 백성들이 마치 전쟁통 피난 행렬만큼 많아졌다. 사헌부 시경 대어편에 나오는데 '유언으로 임금을 대하니 도둑들이 나라 안을 소란케 해'라(流言以對, 寇攘式內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유언은 뿌리도 없도 없는 소문이라는 뜻이다. '비어'의 '비(顰)는 고향한 뉘새를 풍기는 풍령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비어는 뉘가 뉘새 나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겠다. 비어는 사마천의 '사기' 두영·전본 열전에 보인다. 한(漢)나라 초기 효경제에서 무제로 넘어가는 시절 얘기다. 승상을 역임했던 두태후의 조카 '두

영'과 효경제 황후의 동생 '전본' 그리고 오초(吳 초)의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웠던 장수 '관부' 등 세 사람은 서로 갈등이 깊었다. 그 과정에서 '두영'을 비방하는 비어가 퍼졌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한무제는 나중에 두영에게 사형을 내렸다. 유언비어의 '비어'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조선 인조 때, 이괄의 난이 평정된 후 일부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가자 후금군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성을 빼져 나가는 백성들이 마치 전쟁통 피난 행렬만큼 많아졌다. 사헌부 시경 대어편에 나오는데 '유언으로 임금을 대하니 도둑들이 나라 안을 소란케 해'라(流言以對, 寇攘式內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유언은 뿌리도 없도 없는 소문이라는 뜻이다. '비어'의 '비(顰)는 고향한 뉘새를 풍기는 풍령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비어는 뉘가 뉘새 나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겠다. 비어는 사마천의 '사기' 두영·전본 열전에 보인다. 한(漢)나라 초기 효경제에서 무제로 넘어가는 시절 얘기다. 승상을 역임했던 두태후의 조카 '두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